



## 동방경제포럼 소식

**동방경제포럼에서 제 7차 APEC 국제교육협력회의가 개최된다.** 이번 회의의 주제는 '디지털 시대의 교육: APEC의 기회와 도전'이다.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러시아와 아태 지역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. (리아 노보스티)

**동방경제포럼에서 야쿠티아 북극 선도개발구역에 들어설 사업들이 소개될 예정이다.** 이곳에서는 극지 지하자원 채굴, 가공 생산, 에너지 관련 투자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(러시아 동방 신문)

**성대한 '극동의 거리' 전시회 개막식 행사가 9월 9일에 진행된다.** 2018-동방경제포럼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극동 지역들의 경제 잠재력, 문화 전통 및 관광 잠재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. (극동개발부)

**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지형을 닮은 자연환경로 소개된다.** 이산책로는 '극동의 거리' 전시회에 설치가 될 예정으로 관람객들은 극동 지역의 자연들과 만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. (리아 노보스티)

**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환경부는 에코파크(EcoPark)와 극동의 10대 자연 경관을 소개할 예정이다.** '극동의 거리' 전시회 일환으로 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전시관이 극동 연방대학교 해변 캠퍼스에 펼쳐질 것이다. (고스노보스티.RF)

**로스콘그레스 재단이 제 4차 동방경제포럼 공식 잡지를 출간했다.** 세계 경제에서 아태 지역의 역할, 투자 잠재력 개발, 극동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, 러시아와 극동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등이 주요 테마로 다뤄졌다. (타스통신)

2018년도에 극동항 항공 여객운송 보조금으로 4억 루블의 예산이 책정됐다.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저렴한 항공권 판매가 가능해 질 것이다. 이외에도 항공 물류 운송 루트 개발을 위해서 항공사와 항공연료 공급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만들어 질 예정이다. (PrimaMedia)

## 극동 소식

동방경제포럼 조직사 - 'RosCongress'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.

'RosCongress'재단은 컨벤션,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.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, 정보,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

[www.roscongress.org](http://www.roscongress.org)